청렴 외친 광주교육청 비리 수두룩

공립교사 특채 '합격자 바꿔치기'
가족 수당 등 부당 수령 500여명
교과부, 중징계 요구·검찰 고발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의 교사특채에서 '합격자 바꿔치기' 채용 비리를 주도한 간부와 실무자, 교사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 특채비리는 그동안 학교와 산하 기관의 비리·부정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징계조치를 단행했던 시교육청 본청의 비위가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결과 확인된 것이어서, 교육청의 청렴 이미지에 큰 흠집을 남기게 됐다.

교과부는 지난해 말 실시한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기관통보하고 관련 교직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중·경징계 대상은 당시 특별채용을 담당했던 주무과장과 실무자, 심사위원(교사) 등이다. 이들은 공문서 위조, 위계에 위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별도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전교조 소속 모 사립학교 교사 5명을 공립으로 특채하면서 애초 내정했던 교사 1명이 떨어지자 해당 교사의 점수를 조작, 합격시킨 사실이 교과부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에서는 또 모 장학관 특채 과정에서 위법 부당성도 적발, 기관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십명의 교사 등이 연가나 병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거나 500여명이 가족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해 적발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은 교직원이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 지원비를 부당하게 유용한 유치원 원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교육연구관과 장학관 직렬 미준수 인사 등도 지적됐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과부 감사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문제가 된 사안별로 사실 확인, 소명, 이의 절차 등을 거쳐 최대한 빨리 징계절차를 밟겠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징계 인원과 고발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인원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탄자니아서 봉사활동 중 숨진 박미라(왼쪽)씨가 출국 전인 지난 2월 말 전남대 탄자니아 유학생 조셉 마르코(응용생물공학부 2년)씨로부터 현지 언어와 풍습에 대해 배우고 있다.

탄자니아 한글학교 봉사활동
전남대 여학생 안타까운 죽음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한글학교 봉사활동을 하고 숙소로 돌아가던 전남대 여대생이 교통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전남대는 경제학부 3년 박미라(22)씨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현지시간 10일 밤)에서 현지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친 뒤,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대는 지난해 아프리카 지역 대학과의 교류를 시작해 올해 처음으로 지난달 21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대에 교환학생 1호로 박씨를 파견했다. 박씨는 이 대학에서 6개월동안 공부할 계획이었다.

박씨는 평소 동물보호운동과 자원재활용, 지구온난화 방지 등에 깊은 관심을 두고 '유넵 앤젤'(UNEP Angel) 광주지부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업과 스펙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세태에서 그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이국땅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공부하는 외국 유학생을 위한 멘토링 활동, 매주말 다문화 교류봉사 등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애썼다.

박씨의 유족과 전남대 관계자들은 지난 13일 탄자니아로 출국했으며, 전남대는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명예졸업장 수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나원참

광주·전남 10명중 1명
"학교폭력 경험"

광주·전남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1만6000여명이 최근 1년 이내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558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18일부터 2월20일까지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중간 분석해 1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광주에서는 전체 학생의 20.4%(4만480명)가 설문에 참여해 이 가운데 13.6%인 4498명이, 전남에서는 전체 학생의 46.3%인 9만6910명이 설문에 응해 10.8%인 1만506명이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365일 안전한 학교만들기 선포식 전남도교육청은 14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초·중·고·특수학교의 학교장과 학생생활지도업무담당교사 1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만들기 선포식' 및 2012년도 생활지원 기본계획 전달회의를 개최했다. /화순=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동생 살해한 누나 구속

광주서부경찰은 14일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여·23)〈광주일보 3월13일 6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모 빌라에서 동생(21)을 흉기로 찌른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경찰에서 "흉기에 찔린 동생이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청소년 싸움 조장 '맞짱카페' 적발

광주경찰, 7개 폐쇄 8명 입건

청소년들의 폭력을 조장하고 싸움 대결까지 유도한 이른바 '맞장카페'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전국 최초로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싸움'과 '맞장' 등의 단어로 인터넷 카페를 검색, 5969개의 카페를 적발했으며 이중 학교 폭력과 연관된 7개를 즉시 폐쇄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맞장카페들은 맞장 신청란을 통해 청소년들의 싸움을 유도했다. 폐쇄된 한 카페 운영자는 지난해 9월 '전국 싸우고 싶은 사람, 돈 걸고 싶은 사람, 도박하고 싶은 사람 번호 남겨주시고 모임 따로 모집중이에요'라고 싸움을 주선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렸고, 지난 2월 초 게시물을 본 중학생 A군(15)과 B군(15)은 경기도 부천의 한 공원에서 만나 실제로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에 적발된 카페에는 모두 2483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었으며 중·고등학생이 1625명(65%)으로 가장 많고, 초등학생도 175명(7%)이나 가입, 청소년 비율이 72% 달했다. 경찰은 1800명을 즉시 탈퇴조치시켰다. 싸움을 주선하거나 직접 싸우러 온 10대 등 맞장카페 관련, 경찰에 입건된 8명은 선도 프로그램을 통해 훈방할 계획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 유명 등산용품점이 짝퉁 양말 장사

1000원짜리 1만5000원에

당신이 광주시내 몇몇 유명 등산용품점에서 1만5000원에 산 등산양말의 실제 가격은? 제조원가가 1000원도 안된 짝퉁이었다.

광주북부경찰에 14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동구 A, 북구 B 등산용품 대리점 업주 등 9명은 경기도 하남 업체가 만든 1000원짜리 미만의 싸구려 등산양말을 1300원에 납품받아 무려 10배가 넘는 1만5000원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지난 2년 동안 제조·공급, 유통한 가짜 유명상표의 양말은 정품 가격 기준 5억원 상당에 달했다.

이들은 광주, 전남·북 등지에서 국내 유명 등산용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짝퉁 상품을 매장에 진열, 판매했다. 대리점 중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한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대리점에서 판매 또는 사은품으로 제공한 돗자리, 깔판, 등산용 스카프도 같은 방법으로 유통된 정황을 포착, 제조책 검거 및 정확한 경위조사에 나섰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지검 "총인비리 30여명 기소"

첫 공판… 7~8명 추가 사법처리

총인저감시설 비리사건과 관련 기소 규모가 30명 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이날 7명에 이어 앞으로 23명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총인저감시설 비리 사건과 관련 기소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의 수사가 서서히 마무리에 들어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규모가 정해진 만큼 향후 2~3주 동안 이미 수사했거나 수사선상에 오른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공판에는 이미 뇌물수수·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유모(59)·반모(59) 광주시 서기관 등 공무원 2명, 박모(52) 전남대교수 1명, 윤모(52) 대림산업 상무 등 4명과 불구속 기소된 대림산업 관계자 3명 등 7명이 피고인석에 섰다.

이들은 시공사 선정 입찰을 앞두고 1000만~2000만원을 주고받았다는 검찰의 기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향후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다. 오는 23일 오후 2시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심사위원 및 예비심사위원 7~8명 정도가 추가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리 관련자는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어 기소 규모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노인 쌈짓돈 노린 조폭낀 윷 도박단

쌍나팔

○…광주공원 등지에서 윷놀이 도박을 주최한 조직폭력배와 이 도박에 가담한 80대 노인 등 30여명이 줄줄이 경찰서행.

○…14일 광주동부경찰은 전날 오후 4시 30분께 동구 충장로 모 빌딩 지하의 빈 사무실에서 회당 30만원 걸고 2팀 가운데 1팀에 돈을 걸게 해 이긴 팀이 모두 가져가는 속칭 '줄도박' 형태로 판돈 수천만원의 윷놀이한 이들을 도박개장과 도박방조 혐의로 입건.

○…경찰은 공원과 광주천 일대에서 이 같은 윷놀이 도박이 상습적으로 열리는 것으로 보고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휘나핫 HWINA HOT" 반신욕 물없이 즐긴다.

무릅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 OK!!

머리는 차게하고 하체는 따뜻하게 한의학에서 두한족열 의원리로 몸속노폐물, 냉기를 땀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몸속(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이러한 원리를 응용한 휘나핫반신욕기는 가정에서 쉽게 물없이(특허획득제10-096707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그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 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 특별할인 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 씩 보급될것입니다(2020년까지), 시중에 유사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휘나핫을 확인하세요.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반신욕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 채 사우나를 즐길수 있고, 편히 앉아서 T.V나 신문 등을 볼수도 있어 최근 획기적인 사우나기로 각광을 받고있다. 부모님, 부부는 물론 자녀 공부를 하면서 피로를 풀수 있도록 만들어져 온가족이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휘나핫 효소 단식이란?
5~8년이상 숙성 발효된 삼백초 효소 70ml 하루 3번복용하면서 반신욕으로 몸속, 독소와 냉기를 제거하면 건강에 도움이됩니다(여러가지표현할수없는신기한현상을 직접체험할 수 있습니다). 단식중에 수시로 따뜻한 삼백초 차를 복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본인의 체력 상태에 따라서 휘나핫온열 두 번이상 하는것이 좋습니다.

◎무료체험을 통하여
약3~4년동안 하루 200~250명 무료체험을 통하여 많은 체험 사례가 있으나 표현할수 없습니다. 직접체험해보시면 엄청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온열의 중요성
현대 의학이나 한방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 온열의 중요성도 자세하게 표현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휘나핫 반신욕 이렇게 하자
휘나 핫 반신욕기는 하루에 아침이나 저녁 본인 편리한 시간에 1~2회 정도 하는게 적당하다, 면바비, 면티, 면양발착용후 휘림토종참옷물 종이컵 한컵과 따뜻한물 한컵 복용한후 반신욕을 시작한다(약 30~40분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적당하게 온도 설정하세요)반신욕을 한후에는 바로 샤워를 하지않고 일정시간(30분~1시간) 체온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다. 샤워를 하지않아도 땀냄새나 끈끈함이 없어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거나 반신욕 이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더욱 좋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경영 을 검색하세요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욱 지음 | 값 5,000원
강봉석 · 박충훈 공저 북치는마을 | 15,000원

[전국 유명서점 판매중]
전국민 공부합시다!
wwww.successtv.co.kr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능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